

[2026] 한주간 쉽게 보는

국내 미래산업 연구 및 정책동향

Domestic Future Industry Research and Policy Trends

No. 112



Contents

※ 2026.1.8.(목) 기준(대상 기간 : 2026.01.01.~2026.01.07.)

□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1

- 탄소중립 분야 1
 - 충남도, 농업구조개혁·탄소중립·균형발전 가속화 추진(2026.01.07) 1
 - 보령시, 스마트농업·탄소중립 실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실시(2026.01.07) 1
 - 연천군-서울대 환경대학원, 탄소중립·지속가능발전 협력 업무협약 체결(2026.01.06) ... 2
 - 봉화군, 인구소멸·탄소중립 대응 국비사업 발굴 추진(2026.01.06) 2
 - 속초시-천일에너지, 임목폐기물 재활용 협약으로 탄소중립 실현 추진(2026.01.06) 2
 - 성주군, 탄소중립시대 대비 76억 원 투입 대기질 개선사업 추진(2026.01.06) 3
 - 평창군, 탄소중립 기반 옥외광고 행정으로 도지사 표창 수상(2026.01.06) 3
 -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, 탄소중립 전략토론회 개최 예정(2026.01.06) 4
 - 구미시, 로봇·이차전지·첨단소재 3대축 탄소중립도시 선도(2026.01.01) 4
 - 예천군, 민간 주도 탄소중립마을 시범사업 마무리로 생활 실천 모델 제시(2026.01.01) 4
- AI 분야 5
 - 농식품부, 올해 AI전환 등에 2300억 규모 R&D 투자(2026.01.04) 5
 - 국가대표 AI 선정 5개월, 정책 기대감 제한적...네이버·SKT 주가효과 미미(2026.01.06) 5
 - 국가 AI 컴퓨팅센터 순항...삼성SDS 컨소시엄 해남 현장회의 개최(2026.01.07) 6

- 광주 광산업, AI·국방 융합으로 돌파구 모색…국회 토론회 개최(2026.01.07) 6
- 울산시, 아시아태평양 AI 거점도시 도약 본격화(2026.01.06) 7
- 남양주시, 스마트도시 전담 부서 '스마트도시과' 신설…AI 기반 도시혁신 추진(2026.01.05) 7
- 김영록 전남지사, AI·에너지 수도 광주·전남 대부흥 선언(2026.01.05) 7
- 안산시, 첨단 로봇·AI 중심 도시로 전환 시동(2026.01.02) 8

□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8

▪ 탄소중립 분야 8

- 국가철도공단, '그린레일 챌린지' 탄소중립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(2026.01.04) 8

□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(포럼, 세미나, 토론회) 주요 내용 9

▪ 탄소중립 분야 9

- 남서울대학교, 시민·대학생 대상 탄소중립 전문가 교육과정 운영(2026.01.07) 9
- 순천향대-한국서부발전, 탄소중립 친환경 캠퍼스 구축 업무협약 체결(2026.01.01) 10
- 탄소중립 시대, 지속가능 도시의 조건(2026.01.03) 10
- 환경부에 대한 새해 소망, 기초지자체 탄소중립 계획 공개 촉구(2026.01.01) 11

▪ AI 분야 11

- 머스크 xAI, 200억달러 추가 자금 조달…엔비디아·시스코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(2026.01.07) · 11

- SBI저축은행-PFCT, AI기반 대출전략분석 솔루션 협업(2026.01.07) 12
- 딥브레인AI, '비가시성 워터마크' 솔루션 공개…AI 콘텐츠 출처 관리 지원(2026.01.06) .. 12
- 카카오·KT, 국대 AI 탈락 후 자체 모델 성능평가 결과 공개로 존재감 과시(2026.01.05) 12
- 카카오, 스스로 생각하고 답변하는 한국형 AI 모델 '카나나 하이브리드' 공개(2026.01.05) 13
- AI 서버 수요 확대로 메모리 가격 급등 전망…D램 최대 60%까지 상승 예상(2026.01.05) 13
- 머스크 AI챗봇 그록, 여성·아동 성착취 이미지 생성 논란(2026.01.04) 14
- 김성수 SK브로드밴드 사장, 고객신뢰·AI 실행력으로 역동적인 기업 구축 강조(2026.01.02) 14
- FT "AI 거품 꺼지고 트럼프는 관세 더 못 올린다"(2026.01.01) 14
- "AI가 수의보장" 1200억대 사기 팝콘소프트 경영진에 징역 12년 확정(2026.01.02) 15

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

☞ 탄소중립 분야

구분	제목 및 주요 내용
중앙부처	<p>-(해당 없음)</p>
지자체	<p>□ 충남도, 농업구조개혁 · 탄소중립 · 균형발전 가속화 추진(2026.01.07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충남도는 7일 2026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회를 개최하고 농업 · 농촌 구조개혁, 국가 탄소중립경제 선도, 미래 먹거리 창출, 균형발전, 저출생 대책 등 5대 핵심 과제를 발표함. 정부예산 13조 3000억 원 확보와 국내외 투자 45조 원 유치를 목표로 설정.- 탄소중립경제 선도를 위해 당진 그린수소, 보령 수소혼소발전소 등 석탄화력발전의 수소발전 전환을 가속화하고, 2040년까지 수소 생산량 120만 톤 이상 확대 및 2035년까지 산업용 전력의 신재생에너지 비율 90% 달성을 추진.- 농업 분야에서는 청년농 유입을 위한 농지 준공과 2200억 원 규모의 지역 활성화 펀드 조성, 농생명 융복합 산업 클러스터 99만m² 규모 조성 등을 통해 스마트팜과 ICT 축산 기업 육성에 집중할 계획. <p>□ 보령시, 스마트농업 · 탄소중립 실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실시(2026.01.07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보령시는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미래농업 실현을 위해 2월 5일까지 농업인 2850명을 대상으로 'AI와 함께하는 농업의 미래'를 주제로 20회에 걸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실시.- 교육 내용은 시정 · 농정 방향, 농업기술센터 사업 안내 등 공통과정과 농촌리더, 농작업안전, 치유농업, GAP인증 등 맞춤과정으로 구성되며, 벼 · 고추 · 쪽파 · 산채 · 논콩 등 품목별 재배기술도 포함.- 보령시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스마트농업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농업 정보를 지속 제공하여 지역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방침.

구분	제목 및 주요 내용
	<p>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연천군-서울대 환경대학원, 탄소중립·지속가능발전 협력 업무협약 체결(2026.01.06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천군은 5일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함. 생태·환경 자원을 보유한 연천군과 환경·기후 분야 전문성을 갖춘 서울대의 협력으로 지역 주도 탄소중립 실천 모델 발굴 추진. - 이번 협약은 대학의 연구 역량과 지자체의 정책 실행력을 결합해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정책을 넘어 지역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탄소중립 정책과 실천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. - 양 기관은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 공동 연구, 전문 인력 양성, 교육 프로그램 운영, 지역사회 연계 탄소중립 거버넌스 구축 등 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.
지자체	<p>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봉화군, 인구소멸·탄소중립 대응 국비사업 발굴 추진(2026.01.06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봉화군이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7년 국가투자예산과 신규 공모사업 발굴에 착수함. 전 부서에 발굴 지침을 배포하고 부서별 최소 2건 이상의 신규 사업을 의무적으로 발굴하도록 총력 대응 체제 구축. - 발굴 대상에는 2027년 국·도비 지원 신규 및 계속사업과 중앙부처 공모사업이 포함되며, 인구소멸 위기 극복, 지역 특화 산업 육성, 탄소중립 등 국가 중점 정책과 연계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모색. - 각 부서 제출 사업은 1월 16일까지 집계되며, 타당성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중앙부처 및 경상북도에 공식 건의될 예정.
	<p>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속초시-천일에너지, 임목폐기물 재활용 협약으로 탄소중립 실현 추진(2026.01.06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속초시는 6일 (주)천일에너지와 임목폐기물 재활용 무상처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, 산림 및 도시숲 조성사업, 가로수 전정 사업에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을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로 함. - 임목폐기물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전환해 목재 칩으로 재자원화하고 열병합 발전소 연료로 사용할 예정이며, 이를 통해 연간 약 7000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

구분	제목 및 주요 내용
지자체	<p>와 화석연료 대체를 통한 탄소배출 저감 기대.</p> <p>- (주)천일에너지는 2023년 속초시와 폐목재 무상위탁처리 협약을 체결한 기업으로, 이번 협약으로 재활용 범위를 임목폐기물까지 확대하여 자원순환 체계 구축에 기여할 전망.</p> <p>□ 성주군, 탄소중립시대 대비 76억 원 투입 대기질 개선사업 추진(2026.01.06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성주군은 탄소중립시대를 대비해 2026년 약 76억 원의 국도비 예산을 투입하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, 매연저감장치 부착, 친환경차량 보급 등 다양한 대기질 개선사업을 추진함. - 현재 성주의 전기차 및 전기이륜차 등록 대수는 약 1635대로 경북도내 인구대비 무공해차 비율 최고 수준이며, 2026년 57억 원을 투입해 승용전기차 150대, 화물전기차 128대, 수소전기차 2대 등을 보급할 계획. -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7억5000만 원, 노후건설기계 엔진교체에 3억6000만 원을 편성하고, 탄소포인트 제도와 자동차 탄소포인트 제도에 40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. <p>□ 평창군, 탄소중립 기반 옥외광고 행정으로 도지사 표창 수상(2026.01.06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평창군은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 기반 마련 공로를 인정받아 옥외광고 행정 분야에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표창을 수상함. - 군은 2025년 5월 '평창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'를 제정해 무분별하게 폐기되는 현수막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선제적 조치 시행. - 평창군은 향후 배포되는 '친환경 현수막 지침'에 따라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, 친환경 현수막 사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할 예정.

구분	제목 및 주요 내용
	<p>□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, 탄소중립 전략토론회 개최 예정(2026.01.06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이 14일 오후 2시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탄소중립과 제품 탄소규제 대응을 위한 전략토론회를 개최함. 글로벌 탄소중립 정책 강화와 제품 탄소규제 본격화에 따른 지역 수출기업의 대응 과제 점검이 목적. - 김익 한국전과정평가학회 회장이 글로벌 제품탄소규제 동향과 대응 방향을 주제 발제하고, 캠토피아,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, 성남산업진흥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여할 예정. - 조정식 의원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으로 더불어민주당 우수 조례에 선정되는 등 기후대응기금 설치, 스마트농업 육성, 순환경 경쟁력 확보 등 환경 관련 정책을 선도적으로 발의해 옴.
지자체	<p>□ 구미시, 로봇·이차전지·첨단소재 3대축 탄소중립도시 선도(2026.01.01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구미시가 로봇·이차전지·첨단소재부품을 핵심 축으로 첨단산업 혁신을 가속화 하며 전국 1호 탄소중립 산업단지 대표모델로 선정됨. 에너지 자립과 복지 분야에서도 성과를 거두며 산업 경쟁력과 친환경 전환을 동시에 추진. - 로봇 분야에서 산업부 주관 공모사업 4건 선정,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2026년 상반기 개소 예정인 '이차전지 육성 거점센터(310억 원)'를 통해 시제품 제작과 공정 기술 고도화 지원 예정. - 전국 최초 '탄소중립 산업단지 대표모델 구축사업(1302억 원)'을 추진하며,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으로 954개소에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내년 179개소로 확대할 계획.
	<p>□ 예천군, 민간 주도 탄소중립마을 시범사업 마무리로 생활 실천 모델 제시(2026.01.01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예천군이 2025년 처음 도입한 '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시범사업'을 마무리하며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모델을 제시함. 공모를 통해 3개 마을·단체를 선정하고 각 35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민간 주도의 자율적 실천 유도.

구분	제목 및 주요 내용
지자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예천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빈 병 활용 무드등 만들기와 우산 무상 수리 행사를, 호명신도시 호반베르디움1차노인회는 서울 성대골에너지자립마을 견학 후 탄소중립 캠페인을, 효자면 보곡리새마을부녀회는 환경교육과 태양광 가로등 설치 등 실천. - 참여 주민들은 탄소중립이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과제임을 체감했다고 평가하며, 군은 향후 민간이 주도하고 지역이 함께하는 다양한 탄소중립 사업을 지속 발굴할 방침.

☞ AI 분야

구분	제목 및 주요 내용
중앙부처	<p>▣ 농식품부, 올해 AI전환 등에 2300억 규모 R&D 투자(2026.01.04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주요 R&D 사업에 전년대비 16.9% 증가한 총 2348억 원을 투입할 계획을 발표함. 신규사업 예산 287억 원을 포함해 총 12개 사업, 456억 원 규모로 신규 과제를 지원. - 투자 분야는 생명자원 핵심기술 혁신(335억 원), 지능형 스마트농업 기술(510억 원), K-푸드 글로벌 경쟁력 강화(389억 원), 기후위기 및 신·변종 질병 대응(732억 원), 미래 성장기반 확보(382억 원) 등 5대 분야로 구성. - 신규 사업으로 'AX 기반 지능형 농작업 협업 산업화 기술개발', '농생명자원 기반 필수의약품 원료 공급망 대응 기술개발', '농업·농촌 국민체감 AX 기술개발' 등이 포함되어 4월부터 연구에 착수할 예정.
	<p>▣ 국가대표 AI 선정 5개월, 정책 기대감 제한적…네이버·SKT 주가효과 미미(2026.01.06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정부가 '소버린 AI(국가대표 초기대 인공지능)'를 국가 전략 사업으로 추진한 지 5개월이 지났으나 주식시장의 반응은 냉담함. 네이버 주가는 11.8% 상승에 그쳐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 43.8%를 크게 하회.

구분	제목 및 주요 내용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정부는 오는 15일까지 국가대표 AI 후보 5개 팀의 모델 성능을 평가할 예정이며, 이번 평가에서 최하위 1개 팀은 탈락함. 이후에도 6개월 단위 경쟁 평가를 거쳐 선별 작업을 지속. - 최종 국가대표 AI로 확정된 팀에는 GPU 등 컴퓨팅 자원과 데이터 구축·가공 비용으로 연간 30억~50억 원, 연구개발비 연간 20억 원 등이 지원될 예정.
지자체	<p>□ 국가 AI 컴퓨팅센터 순항…삼성SDS 컨소시엄 해남 현장회의 개최(2026.01.07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삼성SDS 등 국가 AI 컴퓨팅센터 컨소시엄 관계자 50여 명이 처음으로 해남을 방문해 데이터센터 건립 예정지를 시찰하고 실행 계획을 점검함. 컴퓨팅센터 사업은 국민성장펀드 첫 투자 대상으로 선정. - 컴퓨팅센터는 2028년까지 첨단 GPU 1만5000장 이상을 확보하고 2030년까지 지속 확충해 학계, 연구계, 중소·벤처기업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, 총 사업비는 2조 5000억 원 규모. - 4월 착공에 들어가 2028년 상반기 시험운행 후 하반기 가동 예정이며, 삼성SDS 컨소시엄은 직접 출자하는 자본금 외 부족분 1조 7000억 원을 국민성장 펀드 등을 통해 조달하기로 함.
	<p>□ 광주 광산업, AI·국방 융합으로 돌파구 모색…국회 토론회 개최(2026.01.07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'첨단 광기술과 미래혁신 국회 토론회'가 열려 침체 위기의 광주 광산업 재도약을 위한 AI·에너지·국방 등 국가 전략 산업과의 융합 필요성이 제기됨. - 황재윤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수는 AI가 결합된 의료 시스템을 소개하며 “광·초음파 영상시스템이 AI를 만나면 인간의 질환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”고 설명함. - 김운섭 광주테크노파크 본부장은 “2011년 300400개였던 광주 광산업체가 현재 5060개 수준으로 쇠퇴했다”며 행정 구역을 뛰어넘는 초광역 마인드와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드라이브가 필요하다고 강조.

구분	제목 및 주요 내용
	<p>□ 울산시, 아시아태평양 AI 거점도시 도약 본격화(2026.01.06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울산시는 6일 2026년 연두 업무보고회에서 AI를 도시 전반에 도입해 일자리가 넘쳐나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발표함. 5대 시정 운영 방향 중 첫 번째로 '미래를 앞당기는 AI 선도도시'를 제시. - SK그룹과 아마존웹서비스(AWS)가 투자하는 AI 데이터센터 유치를 계기로 아시아태평양 AI 거점도시 도약을 본격화하고, R&D와 인력양성, 기업지원, 국제표준 등을 아우르는 울산형 소버린 AI 집적단지 조성 추진. - 김두겸 울산시장은 "AI 기술을 산업과 문화, 시민 생활 전반에 접목해 AI 수도 울산을 만들겠다"고 밝힘.
지자체	<p>□ 남양주시, 스마트도시 전담 부서 '스마트도시과' 신설…AI 기반 도시혁신 추진(2026.01.05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경기 남양주시는 5일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해 AI, CCTV, 교통정보 등 데이터 관련 기능을 통합하는 전담 부서로 '스마트도시과'를 신설함. - 스마트도시과는 CCTV 영상과 교통정보, 시민 생활, 행정 데이터 등 도시 전반의 정보를 통합 분석하고, 범죄 및 사고 예방 중심의 고도화된 도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. - 시는 AI 대전환, 스마트도시 등 중앙정부 정책과의 정합성을 확보해 국비사업 참여와 시범사업 유치에도 적극 나설 방침.
	<p>□ 김영록 전남지사, AI·에너지 수도 광주·전남 대부흥 선언(2026.01.05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5일 시무식에서 병오년 새해를 '전라남도 과학기술 진흥' 원년으로 선포하고, 'AI·에너지 수도 광주·전남 대부흥'의 길을 걷겠다고 강조함. - 글로컬대학인 국립목포대·국립순천대, 한국에너지공대와 함께 AI, 에너지, 우주항공, 첨단소재 등 미래 첨단기술 개발을 선점하고, 권역별 AI 데이터센터 클러스터와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구축 추진. - AI·에너지 시대를 맞아 광주·전남의 40년 행정 경계를 허무는 미래지향적 행정 통합을 통해 남부권 반도체 벨트의 중심축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힘.

구분	제목 및 주요 내용
지자체	<p>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안산시, 첨단 로봇·AI 중심 도시로 전환 시동(2026.01.02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이민근 안산시장은 2026년 신년사에서 안산시가 첨단 로봇과 AI를 중심으로 한 도시로의 전환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발표함. 2026년 시 승격 40주년을 맞아 '대전환의 원년'으로 만들겠다는 의지 표명. - 반월·시화국가산단을 'AX(인공지능 전환) 실증산단'으로 재탄생시키고, 안산사이언스밸리의 경제자유구역 최종 확정으로 약 8조 원의 경제 효과와 3만여 개의 일자리 창출 기대. - 국내 최대 규모의 로봇기업 집적화 캠퍼스인 라이틱(RAITIC), 로봇직업교육센터를 통한 실무형 인재 양성, GTX-C 노선 상록수역 정차와 신안산선 연장 추진 등을 계획.

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

☞ 탄소중립 분야

구분	제목 및 주요 내용
국가기관	<p>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국가철도공단, '그린레일 챌린지' 탄소중립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(2026.01.04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가철도공단은 철도 분야 신재생에너지 활용 확대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'그린레일 챌린지' 공모전을 2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진행함. 전 국민과 공단 직원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3개 분야로 구성. - '정책·개발' 분야에서는 철도 RE100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, '건설·개량' 분야에서는 전력 신기술과 탄소 배출 저감 방안, '국유재산' 분야에서는 철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생산 아이디어를 공모. - 총 12건의 아이디어를 선정하며, 대국민 공모에서 6건, 공단 직원 공모에서 6건이 채택되어 향후 관련 정책에 반영되거나 기술 개발에 활용될 예정.
지방기관	- (해당 없음)

☞ AI 분야

구분	제목 및 주요 내용
국가기관	- (해당 없음)
지방기관	- (해당 없음)

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(포럼, 세미나, 토론회) 주요 내용

☞ 탄소중립 분야

구분	제목 및 주요 내용
민간기업	- (해당 없음)
대학교	<p>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남서울대학교, 시민·대학생 대상 탄소중립 전문가 교육과정 운영(2026.01.07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남서울대학교 RISE사업단은 6일 천안시, 천안시탄소중립지원센터, 한국기후·환경 네트워크와 함께 '탄소중립 전문가 교육과정' 개강식을 개최함. 재학생 33명과 천안시민 90명 등 총 123명이 무료로 참여.- 교육 과정은 탄소중립 개론,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식인 Scope 1·2·3 이해, 생활·학교·기업·상가 공간 진단, 탄소중립 교수·학습법 등으로 구성되며,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, 탄소발자국 산정 등 실습 과정도 포함.- 수료자는 천안 지역 유·초·중·고 학생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교육을 진행하고 천안 탄소중립 네트워크 활동에 참여하여 기후위기 대응 교육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예정.

구분	제목 및 주요 내용
대학교	<p>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순천향대-한국서부발전, 탄소중립 친환경 캠퍼스 구축 업무협약 체결(2026.01.01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순천향대학교는 2025년 12월 30일 한국서부발전(주)과 탄소중립 친환경 캠퍼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. 정부의 '에너지 고속도로' 구축 정책과 연계해 캠퍼스를 재생에너지 생산 및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실증 공간으로 전환 추진. - 양 기관은 캠퍼스 내 탄소배출 저감형 태양광 발전사업 공동 개발,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전환 분야 산학협력 공동 연구와 기술 개발, 관련 분야 정보 교류 및 학술·기술 협력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함. - 순천향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캠퍼스를 친환경 에너지 실증과 기술 검증, 교육·연구가 결합된 에너지 전환 거점으로 조성하고, 현장 중심의 재생에너지 활용 모델을 확산해 나갈 계획.
해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해당 없음)
기타	<p>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탄소중립 시대, 지속가능 도시의 조건(2026.01.03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21년 전국 243개 지자체가 2050 탄소중립을 공동선언한 이후,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(NDC)에서 지자체가 '공동 이행 주체'로 명시됨. 국가 온실가스 배출의 대부분이 건물, 수송, 폐기물 등 도시 기반 활동에서 발생하여 지자체 역할이 핵심. - 2021년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에서 지자체를 탄소중립 실현의 주체로 명시했으며, 2024년 17개 광역시도, 2025년 243개 기초지자체가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함. 서울시는 2026년 기후 예산으로 3조2715억 원을 책정. - 전문가들은 국가 차원의 인프라 구축과 함께 지자체 마을 단위의 상향식 거버넌스 체계 구축, 탄소회계 시스템과 탄소세 설계 등 주민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와 부담을 공정하게 설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.

구분	제목 및 주요 내용
기타	<p>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환경부에 대한 새해 소망, 기초지자체 탄소중립 계획 공개 촉구(2026.01.01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21년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226개 기초 지자체가 2025년 5월까지 온실 가스 감축 계획을 제출함. 그러나 대부분의 보고서가 몇몇 용역업체에 의해 비슷한 양식으로 작성되어 지자체 담당자가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음. - 환경부는 2025년 7월 종합 검토 보고서를 마무리했으나 현재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음. 보고서는 지역 주도의 온실가스 감축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하면서도 지자체 행정의 주도성이나 주민 참여 정도를 검토하지 않음. - 필자는 환경부가 검토된 종합 보고서와 수치 자료를 공개하여 전문가들이 분석할 수 있게 해야 한국의 탄소중립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, 대구·경북 7개 시군구의 탄소중립 모니터링 보고서 사례를 소개.

☞ AI 분야

구분	제목 및 주요 내용
민간기업	<p>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머스크 xAI, 200억달러 추가 자금 조달…엔비디아·시스코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(2026.01.07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AI 스타트업 xAI가 엔비디아와 시스코 지원을 받아 목표액 150억달러를 뛰어넘는 200억달러(약 29조원) 규모의 시리즈 E 투자 유치에 성공. - 투자자로 벨러 에쿼티 파트너스, 스텝스톤 그룹, 피델리티 매니지먼트, 카타르 투자청, MGX, 배런 캐피탈 그룹 등이 참여하고, 엔비디아와 시스코 인베스트먼트가 전략적 투자자로 GPU 클러스터 구축 지원. - xAI는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하고 수십억 명의 사용자에게 도달하는 혁신적인 AI 제품의 신속한 개발 및 배포를 추진할 계획.

구분	제목 및 주요 내용
민간기업	<p>□ SBI저축은행-PFCT, AI기반 대출전략분석 솔루션 협업(2026.01.07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AI 기술금융사 PFCT가 AI 리스크 관리 솔루션 패키지 '에어팩(AIRPACK)'의 전략 분석 솔루션 '랩(Lab)'을 SBI저축은행에 추가 공급함. SBI저축은행은 2024년 5월 AI 신용평가모델을 처음 도입. - 에어팩-랩은 금융사 내 리스크 담당자가 직접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변수와 알고리즘을 조정하며 대출 승인 전략 효과를 실시간으로 검증할 수 있는 AI 전략 분석 환경을 제공. - SBI저축은행은 이번 솔루션 도입으로 경험에 의존하던 리스크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와 모델 기반의 AI 리스크 관리 업무 표준을 구축하고 본격적으로 AX(AI Transformation)를 추진할 계획.
	<p>□ 딥브레인AI, '비가시성 워터마크' 솔루션 공개…AI 콘텐츠 출처 관리 지원(2026.01.06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딥브레인AI가 6일 '비가시성 워터마크(Invisible Watermark)' 솔루션을 공개하며, AI로 생성된 콘텐츠의 출처를 기술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힘. - 비가시성 워터마크는 이미지 · 영상 · 음성 · 텍스트 등 AI 생성물 내부에 사람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식별 정보를 삽입하는 방식으로, 편집 · 복제 · 녹화 이후에도 AI 생성 여부와 출처 확인 가능. - 해당 기능을 자사 생성형 AI 플랫폼 'AI 스튜디오'에 적용했으며, 생성물 메타데이터 삽입, AI 생성물 사전 고지 및 결과물 표시, 딥페이크 탐지 솔루션 'AI 디텍터' 등도 함께 제공.
	<p>□ 카카오 · KT, 국대 AI 탈락 후 자체 모델 성능평가 결과 공개로 존재감 과시(2026.01.05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정부의 '독자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' 최종 정예팀(5개팀)에 들지 못한 카카오와 KT가 자사 모델의 성능평가 결과를 공개하며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음. - 카카오의 '카나나 하이브리드'는 한국어 학력 평가 벤치마크 코넷(KoNET)에서

구분	제목 및 주요 내용
	<p>92.8점을 받아 GPT-4o(83.4점)를 상회했으며, KT의 '믿음 케이'는 글로벌 AI 모델 평가 플랫폼 '아티피셜 애널리시스'에서 국내 중소형 모델 중 1위 기록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카카오는 카나나 하이브리드를 자사 서비스에 접목할 예정이며, KT는 믿음 케이로 B2B 인공지능 전환(AX) 사업을 정조준해 맞춤형 AI 에이전트를 제공한다는 계획.
민간기업	<p>□ 카카오, 스스로 생각하고 답변하는 한국형 AI 모델 '카나나 하이브리드' 공개 (2026.01.05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카카오가 가벼운 일상 대화부터 복잡한 문제 해결까지 하나의 모델로 처리할 수 있는 신규 AI 모델 '카나나-v-4b-하이브리드'를 공개함. - 이 모델은 정보를 종합하고 계산하며 스스로 검산하는 과정을 거쳐 환각을 최소화했으며, 한국어 질문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사고하도록 훈련되어 한국어 학력 평가 벤치마크 '코넷'에서 92.8점 기록. - 김병학 카카오 성과리더는 "한국어에 특화된 자체 AI 모델 개발을 통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높이고, 국내 AI 생태계 발전의 선도 역할을 이어가겠다"고 밝힘. <p>□ AI 서버 수요 확대로 메모리 가격 급등 전망…D램 최대 60%까지 상승 예상 (2026.01.05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AI 서버 수요 확대에 따라 2026년 1분기 범용 D램 계약 가격이 전 분기 대비 5560%, 낸드 플래시 계약가격은 3338%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. - 메모리 업체들이 첨단 공정과 신규 캐파를 서버 및 HBM 중심으로 재배치하면서 PC · 모바일 등 다른 시장의 공급이 크게 제한되고, 미국계 클라우드서비스제공업체들이 선제적으로 물량을 확보하면서 수급 불균형 확대. -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는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힘입어 엔터프라이즈 SSD가 2026년 최대 응용처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며, 클라이언트 SSD 가격도 40%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.

구분	제목 및 주요 내용
민간기업	<p>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머스크 AI챗봇 그록, 여성·아동 성착취 이미지 생성 논란(2026.01.04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소셜미디어 엑스(X)에 결합된 AI 챗봇 그록이 여성과 아동을 성적으로 묘사한 딥페이크 이미지를 제한 없이 생성해 국제적 논란이 됨.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단 10분 동안 100건이 넘는 '디지털 탈의' 요청이 확인. - 전문가들은 그록이 딥페이크 성착취 이미지를 만들고 확산하는 진입 장벽을 크게 낮추고 있다고 지적하며, xAI가 시민사회와 아동 안전 단체들의 경고를 무시해 왔다고 비판. - 프랑스 정부는 그록이 생성한 성적 이미지를 검찰에 신고하고 EU 디지털서비스 법상 엑스의 의무 위반 가능성 조사를 요청했으며, 인도 정부도 엑스 현지 법인에 서한을 보내 문제를 지적.
	<p>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김성수 SK브로드밴드 사장, 고객신뢰·AI 실행력으로 역동적인 기업 구축 강조(2026.01.02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김성수 SK브로드밴드 사장이 2일 신년사에서 "붉은 말의 힘찬 기세로 변화와 성장의 'Dynamic Broadband'를 만들자"고 밝힘. 지난해 순증 M/S 1위 탈환, 전용회선 매출 성장률 1위 수성, 울산 데이터센터 착공 등 성과 언급. - 2026년 경영 전략의 핵심 과제로 '고객 신뢰 강화'와 'AI/DT 혁신'을 제시하고, 핵심 서비스와 고객 접점에 AI를 실질적으로 적용해 시장의 한계를 뛰어넘겠다는 계획 발표. - 김 사장은 "발로 뛰는 CEO가 되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구성원의 실행을 적극 지원하겠다"며 약속한 성장을 반드시 이루어내자고 강조.
대학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해당 없음)
해외	<p>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FT "AI 거품 꺼지고 트럼프는 관세 더 못 올린다"(2026.01.01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새해 특집기사에서 "AI 투자로 손쉽게 돈을 버는 시기는 지났다"고 평가하며 올해 AI 거품이 걷히는 과정에서 벤처캐피털과 사모펀드가

구분	제목 및 주요 내용
해외	<p>당황스러운 수준의 손실을 볼 것으로 전망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는 주가 급락, 중국의 보복 위협,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동력이 약화되어 더 높아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며, 반도체와 의약품 신규 관세 위협은 대체로 철회될 것으로 분석. - 세계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하가 계속될 것으로 진단하며, 일본을 제외한 중앙은행들은 2026년에도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.
기타	<p>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"AI가 수익보장" 1200억대 사기 팝콘소프트 경영진에 징역 12년 확정(2026. 01.02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법원 2부는 AI 투자 프로그램을 활용해 월 15%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1200억원대 폰지 사기를 저지른 팝콘소프트 경영진 3명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함. - 이들은 2022년 3월 팝콘소프트를 설립한 뒤 'AI 트레이딩봇'을 소개하며 “매달 원금의 15%를 수익률로 보장한다”고 홍보해 304명의 피해자들에게서 1203억원을 가로챔. - 실제로 해당 프로그램은 이들이 개발한 것이 아니었고,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자금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'돌려막기'만 했을 뿐 실제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.

※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(연구기획전략실)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,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.